

2023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지원〉,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 〈유망예술 단체 지원〉 심의 총평

■ 장애인 미술 아트페어 지원

○ 심의위원(가나다 순) : 김최은영, 배기열, 안현정, 오윤서, 최창희

이번 대면심의에서는 새로운 기획력을 가진 창의성 있는 단체와, 지속가능성 부분에서 지역안배와 판매성과를 제대로 높일 수 있는 단체를 주요 선정요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의 적합성(20%)과 사업수행역량(30%)은 아트페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판매전략과 홍보, 마케팅과 목표전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기존에 사업에 선정된 단체라 하더라도,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목표치를 보이거나 사업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비한 단체라면 '발전가능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미선정 단체의 경우 사업계획(20%) 역량부분의 부족, 예를 들어 지원예산을 터무니없게 책정하거나 변하지 않는 비슷한 기획으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해 새로운 단체의 진입경쟁에서 기획의 부족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선정된 두 단체의 경우, 판매목표치에 대한 정확한 금액제시와 전략, 대상에 있어 비교적 정직한 사업목적과 가시적 성과를 제시해 '미술품유통 활성화'라는 기대효과(30%)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선정된 단체들의 경우에도 명확한 예산범주의 설정이 요구되었고, 지역안배에 있어서 전국단위로 활성화 할 것을 추가조건으로 제안합니다. 특히 새로운 선정 단체의 경우 규모를 조정해 현실적으로 완성도 있는 페어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선정단체 모두 작품판매집계의 정확성을 확보해 정부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권고합니다.

■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

○ 심의위원(가나다 순) : 남윤일, 이영석, 이지혜, 오성화, 장은정

2023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유형별 특성화 축제>에는 총 6개 단체가 지원하여 서면 심의와 대면 심의를 통해 2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원신청서를 4개의 평가항목인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실현성과 타당성, 사업수행역량 그리고 기대효과에 따라 심사하였습니다.

선정여부를 떠나 지원서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상에 세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원서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활동이 눈앞에서 펼쳐 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이 공간에서 벌어질지, 예산을 할 수 있어야 바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선한영향력을 보여주는데 가려져 사업내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둘째, 지원서류를 살펴보는 내내 떠오른 질문은 '축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이 드러나지 못하는 기획은 중구난방의 프로그램 모음집 같은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대중이 이 축제에 왜 참여해야만 하는 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은 예술에 대한 철학의 부재입니다. 주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예술관이 무엇인지, 어떤 장르에서 어떤 매체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지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장애예술지원이 문화복지지원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은 무엇일까요?

서면심의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여 대면심의 대상 선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현장의 현실과 한계를 공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원서에 마저 기술하지 못했거나 지원서 기술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고 열정이 느껴지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원서가 관성에 의해 쓰인 부분이 많이 보여 아쉬웠지만 반면에 새로 축제 기획에 도전하는 열정과 장애예술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술이 축제로 펼쳐질 때 예술가와 관중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공존해야 할까요? 공적기금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축제가 대중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축제가 되고, 축제를 향유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다정하게 살피며, 예술에 대한 감각적인 질문을 끝까지 주고 놓지 않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 유망예술 프로젝트, 유망예술 단체 지원

○ 심의위원(가나다 순) : 문영민, 송현민, 정일주, 허명진, 홍은지

유망예술 프로젝트 지원은 장애예술 기반의 대표 프로젝트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여 특성화된 콘텐츠 발굴 및 장애예술의 수월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유망예술 단체 지원은 장애 유형별 대표단체 발굴 및 성장 지원을 통한 장애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장애예술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근 장애예술을 둘러싸고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지원작들이 많았습니다. 장애예술가와 비장애예술가의 단순한 소통과 교류에만 치중했던 예전과 달리 이번 지원작 중에는 교육과 교류 과정을 통한 작품 제작의 과정이 보다 세련되어졌고, 시대와 함께 변하고 있는 배리어프리적 감수성은 물론 장애와 비장애 예술가들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여러 기술적 요소와 반영된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작들을 검토하면서 장애예술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수합된 작품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에 걸맞은 심사 기준을 선정하여 심의를 진행해나갔습니다.

먼저, 2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맞은 사업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장애예술가들의 당사자성과 참여 비율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참가하는 예술가와 단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것인지, 협업 가능성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예술계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추상적인 기획안, 투명하지 않은 예산안, 장애예술가들의 참여와 당사자성이 부족한 기획, 사업의 구현 가능성이 부족해보이는 기획, 성장가능성보다 단발적인 참여와 발표에만 중점을 둔 단체는 배제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본 사업은 2차 연도로 나뉘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원한 단체들이 1차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성실성을 보였으나, 2차연도에서는 부족함과 미흡함이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국내에 장애예술계는 이러한 선정작들을 통해 작품의 개발과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작품 발표로만 그치지 말고, 국내에 미진한 장애예술인을 발전적으로 형성한다는 생각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